

의 기질군 분포와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( $p < 0.05$ ),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배경에 맞는 영아의 기질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도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.

② 영아의 기질군별 남녀의 분포 차이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차이가 기질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③ 영아의 형제 순위별 기질군의 차이에서 까다롭다, 까다로운 편이다, 느리다에서 높게 나타나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( $p < 0.05$ ) 형제 순위가 기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.

④ 기질군별 기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 유무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arey의 보고와 비슷하다. 내용으로는 수유문제, 심하게 떼를 쓴다, 너무 많이 운다, 성질이 급하다 등이 나왔다.

⑤ 밤에 깨는 습관과 영아의 기질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( $p < 0.05$ ). 순하다, 순한 편이다에서 밤에 깨는 울이 낮으며, 까다로운 편이다, 느리다, 까다롭다는 군에서는 밤에 깨는 울이 매우 높아 수면 습관에 대한 수정이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.

⑥ 영아의 기질군에 따른 영아의 산통경험의 유무분포는 영아의 기질군과 산통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Carey의 보고와는 달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산통 자체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해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해석이 된다.

## 인공유산이 모자보건에 미치는 영향

대동간전 논문집 제5집, pp. 23~32, 1986. 6.

### 김혜경

#### 결론

1985년 7월부터 8월말까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기혼가임여성 263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공유산실태 및 인공유산이 모자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총응답자 263명중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는 부인이 130명으로 49.4%였으며 빈도별로는 1회경험이 가장 많았고 평균 인공유산 횟수는 0.88회였다.
2. 연령별 인공유산율은 35~39세의 부인이 가장 높았으며 35~39세를 정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40세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였다( $p < 0.01$ ).
3. 학력별 인공유산율은 학력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인공유산율은 증가하였다( $p < 0.01$ ).

4. 자녀수와 인공유산율은 자녀수가 증가 할수록 인공유산경험율도 증가하여 3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가장 높았고 4명이상이 되면 점차 감소하였다(  $p < 0.01$ ).
5. 결혼기간별 인공유산율은 결혼기간 3년이내가 가장 낮았고 3년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4~7년에서 가장 높았으며 8년이상이 되면서 약간 감소하였다(  $p < 0.01$ ).
6. 피임상태와 인공유산율은 인공유산유경험자의 피임실천율이 무경험자보다 더 높았다(  $p < 0.01$ ).
7. 임신시의 건강문제와 인공유산과의 관계에서 인공유산유경험군이 무경험군보다 부종, 고혈압등의 임신중 건강문제가 더 많았다(  $p < 0.05$ ).
8. 인공유산유경험군이 무경험군보다 분만시문제가 2배이상 높았다(  $p < 0.01$ ).
9. 인공유산유경험군의 부인과계통의 이상증상이 무경험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(  $p < 0.01$ ).

## 폐결핵 환자의 결핵관리에 대한 지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

### — 보건교육 요구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—

전남의대잡지, Vol. 23, No. 3, pp. 409~418, 1986.

박 인 혜 · 최 순 희 · 오 상 은

#### 결론 및 제언

198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K 시의 1개보건소와 C 병원 결핵실에서 221명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하여 결핵관리에 대한 지식정도과 실천정도 및 보건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.

#### 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, 여성보다는 남성이, 미혼보다는 기혼이 많았고, 학력으로는 고등학교학력군이, 직업으로는 농·임·수산업에 종사하는군이 다른군에 비해 많았다.

#### 2. 결핵질환과 관련된 특성

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은장소는 53.0%가 보건소라 하였고, 유병기간은 4년미만군이 63.8%였으며, 치료를 중단한경험이 있었다는군이 33.9%였는데 이들의 중단이 유증 수위를 차지한것은 완치된 것으로 잘못판단한 것으로 46.3%였다.

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군은 26.2%밖에 안된것에 비해 교육받기를 원하는 군은 61.5%가 되어 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주지 하였으며, 이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으로는